

● 제18회 책의 날 기념식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는 10월 1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일 출협 회장,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심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종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윤청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단체 인사와 회원사 대표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환적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문화의 근본이 출판에 있고, 우리는 이 출판문화를 더욱 숭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도전과 기회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으며, 출판인 모두가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과 "도서정가제의 정립, 서울국제도서전 확충, 각종 추천도서 사업 활성화,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 국제출판협회 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동채 장관은 축사에서 "프랑크푸르트 사업의 주인은 출판계이며, 정부는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국가 신인도와 경쟁력, 문화역량을 높이고, 21세기를 주도하는 한국문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제34회 한국출판공로상 및 관련업계 출판유공자상, 제11회 독서진흥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정부 표창 ▶ 대통령 표창 : 강희일(다산출판사 대표), 조근태((주)현암사 대표이사), 장평순((주)교원 대표) ▶ 국무총리 표창 : 지윤환(홍신문화사 대표), 송영석(해남출판사 대표), 엄호열(시사일본어사 대표) ▶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 김인호((주)금성출판사 대표이사), 함기만((주)한림출판사 대표이사), 이기열((주)디딤돌 대표이사), 이형규(쿰란출판사 대표), 송광현(복두출판사 대표), 이갑수(공리출판사 대표), 이병덕(정일 대표), 강기준(삼성B&C 대표), 홍상욱(성지출판(주) 대표), 김정식(민영사 대표), 윤세민(경인여자대학교 부교수), 장재하(동현출판사 대표), 이상원(크라온출판사 대표이사), 김동휘(여원미디어 대표), 김태웅(동양문고 대표), 임성렬(신서원 대표), 김영철((주)에디코 대표이사), 김옥철((주)안그래픽스 대표이사), 이대철((주)한국슈바이처 대표이사), 오상환(신일상사 대표)

◆ 독서진흥상(제11회) ▶ 단체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문고부문 : 제주 남제주군 감산리 새마을문고 ▶ 개인부문 : 한명옥(서울 관악구 남현동 새마을문고 고문)

◆ 한국출판공로상(제34회) ▶ 기획·편집부문 : 권영자(서울대학교출판부 과장) ▶ 영업부문 : 조성우(웅보출판사 부장) ▶ 관리부문 : 최재건(한국프뢰벨(주) 대표이사)

◆ 관련업계 출판유공자상 ▶ 인쇄부문 : 장연식(삼광인쇄사 대표) ▶ 제책부문 : 김태창(정민제책 대표) ▶ 서적상부문 : 고영복(한얼문화공사 대표), 고택환(영통서적 대표), 서철용(대구도매서적 대표), 김재환(기술서적 대표), 김천섭(포항경북서림 대표), 박병화(중앙서적 대표)

◆ 감사패 : 김미화

책의 날 대통령 수상자 공로사항



강희일 1979년 다산출판사를 설립한 이래 학술·전문도서 출판발전을 위한 출판저술 환경 조성 및 교재 채택로 근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운영체계 확립 및 불법복제 전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를 통한 건전한 출판풍토 조성, 출판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통한 21세기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인으로서 출판문화 향상 및 업계 공동발전에 기여했다.



조근태 1972년 (주)현암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좋은 책·꼭 필요한 책·우리 것을 지키는 책 출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문화 및 환경문제, 아동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출판 콘텐츠 개발을 통해 출판계 발전에 기여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전자책컨소시엄 이사로 활동하며 출판문화 발전에 노력을 기했다.



장평순 1985년 (주)교원을 설립한 이래 정도경영과 과감한 투자로 업계발전에 기여했으며, 출판 전문인력 양성·배출에 진력하는 한편, 수준 높은 출판물의 해외수출에 큰 성과를 거둬으로써 세계에 한국출판의 위상을 떨치고, 독창적인 학습교재 출판으로 미래교육을 개척하는 데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업계 공동의 발전과 출판문화 진흥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올해의 청소년 도서 겨울분기 신청도서 접수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사장 김낙준)이 시행해 오고 있는 '올해의 청소년 도서' 사업의 겨울분기 신청도서를 접수한다.

2004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발행된 초판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문학·예술, 종교·철학, 과학·기술, 사회·문화, 역사 분야에서 25종 이내의 도서를 선정한다. 선정도서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종당 100~300부씩 구입하여 청소년 관련단체, 선도기관 등에 배포하게 된다. 출판사에서는 신청서, 신청도서 리스트, 해당도서 2부를 출판협회 기획사업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출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접수마감은 오는 11월 13일까지이다.

문의전화 (02) 735-5651/2, www.kpa21.or.kr

● 교보문고 '올해의 책 150종' 선정

교보문고(대표 권경현)가 독서의 계절을 맞아 '올해의 책'을 선정, 발표했다. 2003년 8월 9일 이후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279개 출판사에서 출품한 1,545종의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계층별·분야별로 나뉜 7개 분야에서 150종의 도서가 선정되었다.

분야별 선정종수는, 유치원 분야《겨울 할머니》(필리스 루트 지

음, 느낌보) 외 20종, 초등학교 저학년 분야《가로수 밑에 꽃다지가 피었어요》(이태수 지음, 우리교육) 외 20종, 초등학교 고학년 분야《강마루에 한번 와 볼라요》(고재은 지음, 문학동네어린이) 외 20종, 문학분야《검은 꽃》(김영하 지음, 문학동네) 외 30종, 인문예술 분야《1421(중국 세계를 발견하다)》(개빈 멘지스 지음, 사계절) 외 20종, 사회과학 분야《10년 후 한국》(공병호 지음, 해냄) 외 20종, 자연과학분야《가이아》(제임스 러브록 지음, 갈라파고스) 외 20종이다.

선정도서는 교보문고 전 영업점 및 인터넷교보문고에서 특설 전시 판매되며, 선정도서 목록은 교보문고 전 영업점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홈페이지에서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www.kyobobook.co.kr

● 한국출판학회 국제출판학술회의 개최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종국)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편집학회 주최로 개최된 국제출판학술회의에 참가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학술회의에 참가한 대표단은 논문 발표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7명의 발제로 구성되었는데 발제자와 논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김기태(세명대 교수) : 저작권 보호가 민족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 ▶ 김승일(동국대 겸임교수) : 한자문화권에 있어서 번역의 근현대적 의의와 협력방안에 관한 일고찰 ▶ 김정숙(백제예술대 교수) : 출판진흥 정책의 국제문화적 비교 ▶ 남석순(김포대 교수) : 국제출판학술회의의 학문적 성과와 연구경향 ▶ 이기성(계원조형예술대 교수) : 전통출판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이은국(서일대 교수) : 각국의 출판물 및 저작권 수출에 관한 비교연구 ▶ 이종국(혜천대 교수) : 출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이해와 전망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조사연구 용역사업 및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중심)가 주관하는 ‘2004 조사연구 용역사업’의 주제가 선정되었다. 올해 주제는 ‘디지털 시대 출판문화의 질적 향상과 독서진흥을 위한 인터넷 미디어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며, 책임연구자로 한국출판학회 김정숙 이사(백제예술대학 교수)가, 협력연구자로 동학회 박홍재 사무국장과 성대훈 씨가 참여한다. 한국출판학회는 조사연구를 위해 대내 연구자 공모 및 출원기관으로 참여한다.

한편 최근에 발표한 이달의 읽을 만한 책(10월분) 선정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진정한 부(장 지오노 지음·김남주 옮김, 두레, 값 8,900원) ▶ 1,000원으로 시작하는 서울 역사 문화 여행(윤돌 지음, 황금부엉이, 값 9,800원) ▶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새뮤얼 이눅 스텝프 외 지음·이광래 옮김, 열린책들, 값 27,000원) ▶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1(틴 스키너 지음·박동천 옮김, 한길사, 값 30,000원) ▶ 코드 한 줄 없는 IT 이야기(김국현 지음, 성안당, 값 12,000원) ▶ Made in USA(기소르망 지음·민유기 외 옮김, 문학세계사, 값 9,900원) ▶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DNA(브렌다 매독스 지음·나도선 외 옮김, 양문, 값 18,000원) ▶ 건축, 사유의 기호(승효상 지음, 돌

베개, 값 18,000원) ▶ 두 바퀴에 신고 온 슬픈 천국(강덕치 지음, 현암사, 값 9,800원) ▶ 가족 앨범(실비아 다이네르트 외 글·올리케 볼안 그림·엄혜숙 옮김, 사계절, 값 9,800원)

● 한·일 출판교류 세미나

파주어린이책한마당조직위원회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파주어린이책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행사 첫날인 10월 15일, 파주 출판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는 한·일 양국 출판인들이 모여 ‘한·일 출판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일 양국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제1주제인 ‘한·일 아동출판 현황과 협력 발전방안’에 관해 이호백 재미마주 대표, 이구용 임프리마코리아 부장, 일본 아동출판사 카이세이사의 이마무라 마사키 대표, 일본저작권수출센터의 요시다 유리카 이사의 토론이 있었다. 제2주제인 ‘한·일 공동출판의 비전’에는 에이지21의 두 주역인 김영근 북이십일 대표와 에이지출판사의 하라다 에이지 대표가 참석, 공동출판 경위와 추진 경위·과제를 발표했다.

● 범우사 창립 38주년 기념식

범우사(대표 윤형두)는 9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범우사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개최에 이어 전국 각 대학에서 출판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15명에게 장학금 전달, 범우출판문화재단의 창립 기념식, 윤형두 대표의 칠순 기념 문집 봉정식으로 진행됐다. 윤형두 대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지내고 현재 한국출판학회 명예회장이다.

● 상설 종이 전시장

‘삼원 페이퍼 갤러리’ 문열어

세계 각국에서 고급·특수종이를 수입해 파는 (주)삼원특수지(대표 이상욱)가 최근 서울 중곡동에 ‘삼원 페이퍼 갤러리’를 열었다. 이 갤러리에는 고급 인쇄용지와 그래픽디자인·봉투·포장지 등 최고급 종이류 3,600여 종이 진열돼 있으며, 개관 기념으로 잔더스사의 아트 캘린더 특별전(10월 23일까지)을 비롯, 윌리엄 해럴드 왕(말레이시아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 초대전(10월 29일~11월 20일), ‘세계 코트지 제작물 특별전’(11월 26일~12월 11일) 등 특별전시가 개최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공휴일은 휴관한다.

문의전화 (02)468-9008

● 한국출판문화아카데미 2기 분야별 교열과정 워크숍

한국출판문화아카데미에서 워크숍을 통한 교열교열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제2기 분야별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책의 기획, 편집, 제작, 유통 등 출판 전 과정의 기획편집 실무를 내용으로 진행한다.